

프로필

이름: 박필준

생년월일: 96년 12월 14일

이메일: ahd775@naver.com

연락처: 010-2755-6414

학력: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시각광고디자인학과

인스타그램: 321.759

작가 약력

단체전

2015년 평범한 히어로 평범한 작가들 전

2017년 마음, 놓아주다 전 (갤러리 램버트)

2018년 2018 우수작가 전 (갤러리 램버트)

2019년 3월 mayfly18 전

2019년 5월 아포리즘:미화 전 (전시기획팀 망막)

2021년 3월 something 2 (레미안갤러리)

2021년 11월 아트프라이즈 강남

2021년 11월 거울 속으로 (peperomi)

개인전

2019년 11월 심연 속으로 전 (사이아트스페이스)

아트페어

2021년 서울 뷰티인그레이스 아트페어 예정

작가노트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우선 '기억을 들여다보는 X'와 '기억의 주인 Y'로 구분한다.

X에게 있어 작품은 Y의 기억 속에서 X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다. 안녕을 추구하는 X는 Y의 기억을 통해 슬한 상흔을 발견하고 X를 위한 질서를 그려나간다. 이로 인해 X의 상흔을 치유하는 과정이 작업의 중심이 된다.

'Y의 기억'은 상처를 기반으로 기억 속에 남겨진 영상들, 여기에 파생된 생각과 소리가 무질서하게 남아있는 심연이며 X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자 수단이다. 과정은 이와 같다. 남겨져 있던 영상과 생각, 소리들을 정리한 뒤 시각적(작품)으로 형상화 한다. Y의 기억에 남겨진 상처의 파편들은 변하지 않으며 감정이나 정서적인 측면이 중심이다. 이는 기억을 들여다보는 X로 하여금 파도에 휩쓸려 주체가 뒤바뀌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억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의미하며 언제든지 파도에 휩쓸려 주체가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X는 기억에서 자신을 잃어매던 Y의 비관적인 감정들의 이야기를 마주한다.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기괴하지만 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최대한 현실적인 분위기를 위해 배경이 필요한 작업은 주로 마주하는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그려냈고, 심연이 X에게 주는 일상이나 기억에 담겨진 기괴함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면서도 모호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기위해 물감을 몇 번이나 덧칠하여 표현했다.

관객으로 하여금 공상, 망상이 아닌 형실과 망상의 교차점을 제시함으로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제시한다.



Acrylic on canvas_91.0 x 116.8_2019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던 이가 수도 없이 아름답다고 나에게 말해주던 꽃, 지금은 너의 상황을 보여주는구나.
이처럼 잔인하고 아름다운 꽃이 있을까



Acrylic on canvas_72.7 x 90.9_2019

일상은 지옥이다

누군가에게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다.



Acrylic on canvas_145.5 x 112.1_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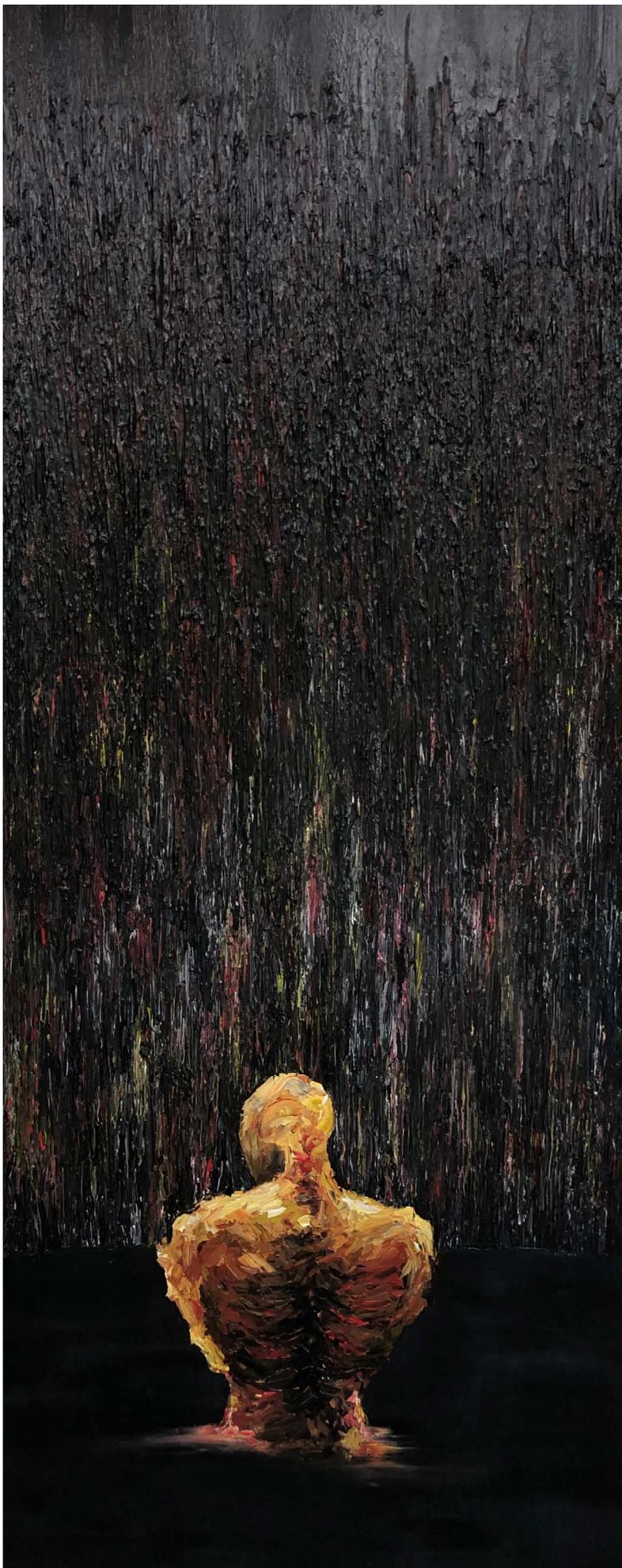
소리없는 아우성

심연 속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외치던 말들



환각

심연이 내게 준 환각



밑바닥

바닥이라고 믿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작은 환상에 불과했다.



Acrylic on canvas_31.8 X 40.9_2021

감정을 숨긴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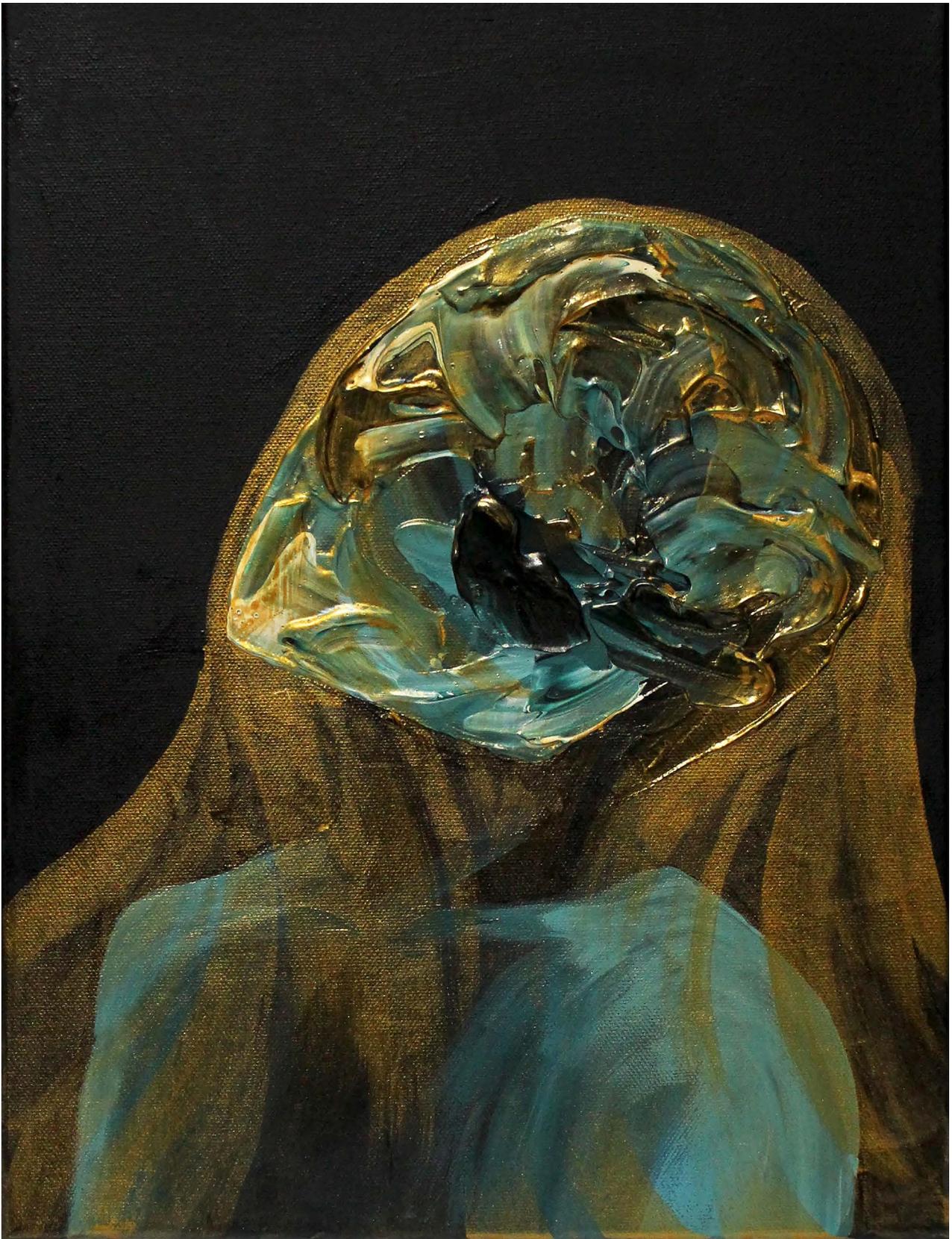
감정을 숨긴 이들의 초상



Acrylic on canvas_31.8 X 40.9_2021

감정을 숨긴 사람들

감정을 숨긴 이들의 초상



Acrylic on canvas_31.8 X 40.9_2021

감정을 숨긴 사람들

감정을 숨긴 이들의 초상



Acrylic on canvas_53.0 X 65.1_2021

감정을 숨긴 사람들

감정을 숨긴 이들의 초상



Acrylic on canvas_31.8 X 40.9_2021

감정을 숨긴 사람들

감정을 숨긴 이들의 초상



Acrylic on canvas_31.8 X 40.9_2021

감정을 숨긴 사람들

감정을 숨긴 이들의 초상



Acrylic on canvas_72.7 X 90.9_2021

감정을 숨긴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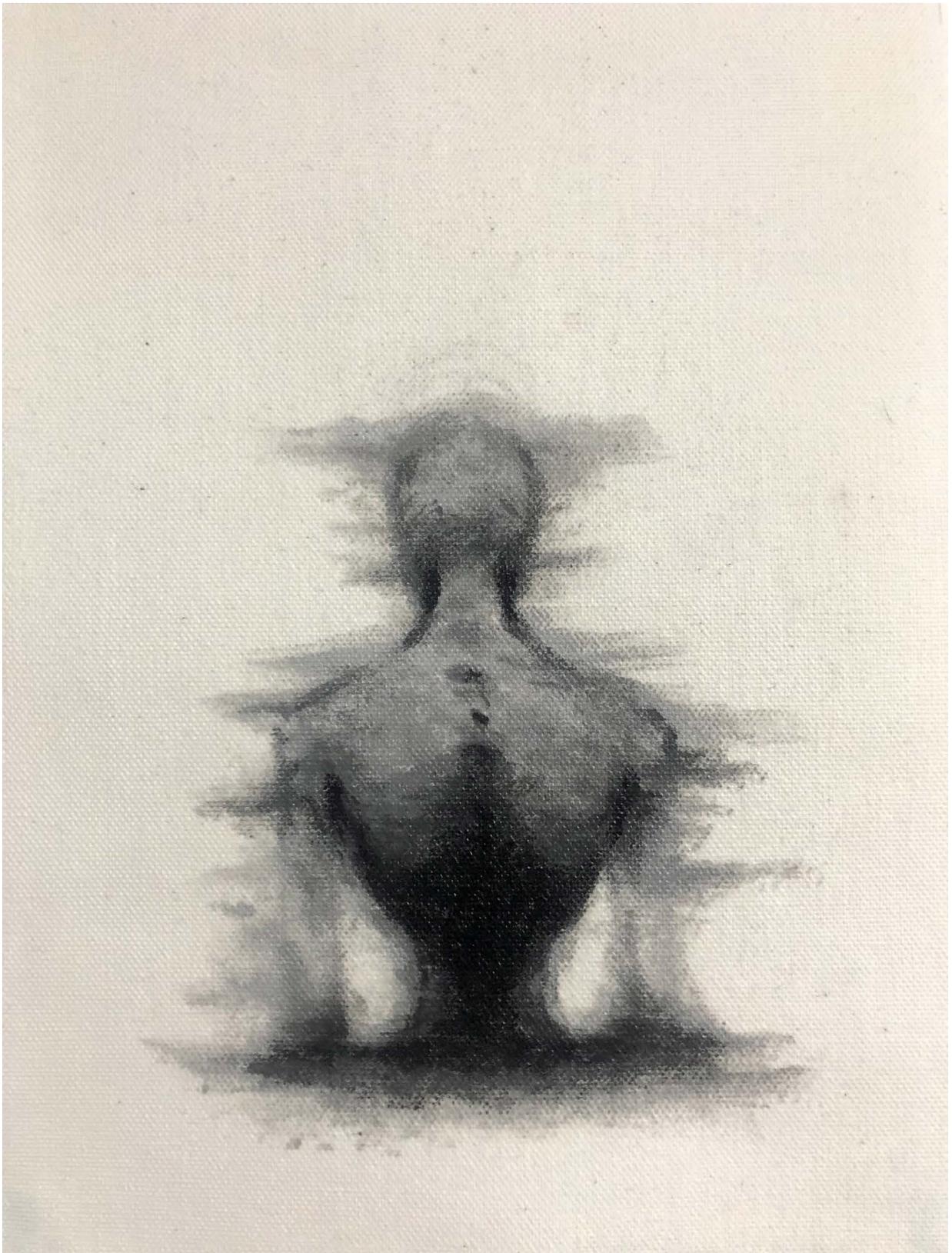
감정을 숨긴 이들의 초상



Acrylic on canvas_21.0 X 29.7_2021

안개를 걷는 사람들

알 수 없는 미래를 걸어가는 이들



Acrylic on canvas_21.0 X 29.7_2021

안개를 걷는 사람들

알 수 없는 미래를 걸어가는 이들



Acrylic on canvas_21.0 X 29.7_2021

안개를 걷는 사람들

알 수 없는 미래를 걸어가는 이들



Acrylic on canvas_21.0 X 29.7_2021

안개를 걷는 사람들

알 수 없는 미래를 걸어가는 이들